



지거 쿠티더, The Breaking of the Bread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6시 아래 성당
청년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지도신부 김성민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헬레스틴(투스정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c@gmail.com

제1독서: 집회 3,17-18,20,28-29

제2독서: 히브 12,18-19,22-24

복음: 루카 14,1,7-14

가톨릭 성가 입당: 66

봉헌: 24

성체: 165

파견: 286

◆ 화답송



(후렴)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위하 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 나이- 다.

-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주님이시다. ◎
-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네. ◎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짜가들의 잔치”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언젠가 유행했던 노랫말인데,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을 무시하고 못난 사람은 또 그 잘난 무리에 속하려 허영을 떠는 모습을 풍자한 듯하다. 오늘 바리사이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신 예수님께서도 부르셨을 노래인 것 같다.

종교적 입지를 통해 정치권력까지도 지니고 있던 바리사이의 지도자 정도라면 그곳에 초대된 이들 또한 만만치 않은 힘을 지닌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자기들 지역에서는 제법 윗자리에 앉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으리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느님을 섬기면서도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하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은 “짜가들의 잔치”가 아니었을까.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은 집착으로 인해 허영과 과대망상에 빠져 존경과 사랑이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에게서 기인하는 ‘자기애(自己愛)’에 빠진 이들이 많아진다. 그런 ‘요지경 세상’ 속에서 때로는 신앙 역시 자신의 허영과 과대망상을 부추기는 도구가 되기도 하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들 신앙공동체를 위협한다.

현자들은 ‘자기를 높이면 사람들이 멀어지고 자신을 낮추면 사람을 끌어들이는다.’고 말한다. 그것이 사람뿐이랴. 하늘까지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겸손의 힘이 세상과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절실해지는 때다. ♣

“성경 맞들이기 - 오바드야서, 제2이사야(이사 40-55장)”

1. 저자

‘오바드야’는 ‘야훼의 종’이라는 의미이며, 이름 외에 예언자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다만 신탁의 내용에 근거해 그가 유다 출신 예언자이며, 유배중에 하느님의 환시를 체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야훼의 충실한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치 상황에 해박한 역사학자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오바드야서는 21절로만 이루어진, 신구약성경 중 가장 짧은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8절, 19-21절 사이에 문체나 주제상의 균열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오바드야서는 한 예언자의 고유한 기록이 아니라 다른 예언자들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 서로 다른 문학 유형이 섞여 완성된 작품인 것으로 보고 있다.

2. 제작배경과 구조, 주요 내용

신탁의 주제는 한마디로 ‘에돔에 대한 심판’이다. 에돔족은 유다 남부와 사해 일대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로, 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를 기회로 유다인들을 약탈하고, 바빌론에게 노예로 매매하여 이득까지 취했던 이들이었다. 예언자는 이러한 에돔족의 잔혹한 행위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고발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예언서는 유배 중이나 유배 직후에 집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바드야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전반부(1-14절)는 ‘에돔에게 내릴 심판’이 선포되고, 후반부에서는 (15-21절) ‘이스라엘의 재건’이 약속된다.

3. 신학적 메시지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 에돔에 대한 심판과 유다에 대한 구원 선포는 하느님의 정의에 입각하고 있다. 유배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유다인들에게 하느님의 정의에 근거한 심판과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돔에 대한 징벌’은 에돔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 모든 민족에게 실현될 사건이다. 곧 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행위한 민족은 모두 주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바드야서는 교만한 자의 종말과 시온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제 2 이사야

‘선민(選民)’이라는 터무니없는 오만이 유배를 통해 정화되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종’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겸손한 자기 이해를 통해 성숙해가고 자유로워지던 눈물의 시절에 활동했던 이가 제2이사야이다.

1. 제1 이사야와 차이점 · 연계점

제2이사야(40-55장)는 제1이사야(1-39장)보다 거의 200년 이후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제1이사야가 ‘파국적 심판’을 선고했다면 제2이사야에서는 그 심판을 모두 받았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이사야는 유배에서의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 등 구원의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이들을 ‘이사야서’라는 하나의 책으로 연계시키는 공통분모가 있다. 제2이사야의 소명사화(40장)와 제1이사야의 소명사화(6장)가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남유다의 대표적 사조인 ‘다윗-시온 전통’이 강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곧 다윗 가문에서 나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하느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관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제이다.

2. 제2이사야의 저자

유배 초기에 활동했던 예제키엘보다 조금 후대(20년 후) 사람으로 추정된다. 자신을 ‘이사야’로 소개하는 익명의 저자는 유배생활에 지쳐있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던 ‘위로의 예언자’였다.

<간지에 계속됩니다.>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울뜨레아** : 11시, 교육관 4호실

> **학부모회** : 11시, 교육관 3호실

◆ 공 지 사 항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 1,820
● 교무금	셀리나해지스 신윤길 박순 이규완 이기원 강호영 이경자(울) 정희자 박정자 함동우 오인희 김보현 고은경 성숙영 민완준
● 감사헌금	\$ 100 김은아
● 합 계	\$ 1,920

❖ **꽃봉헌** : \$20 노혜영

> 한가위 야외 행사(9월 8일)

준비물 : 돗자리

일정 :

08:50 Broadway 31st 출발

*차내에서 긴 연도 바치기

10:20 '빅토리호의 기적' 마리너스 수사님 묘소 참배

11:00 성경 경사. 암송 대회

12:00 점심

13:00 체육대회

14:30 미사(*미사 후 짧은 연도)

15:30 뉴튼 수도원 출발



연미사신청 / 버스티켓(\$10) : 친교실 / 연령회 담당

*무임승차는 불가합니다. 티켓을 구매해주세요^^

> 후원에 감사합니다☺

한가위 야외행사에 물심양면으로 마음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 후원해 주신 물품 : (송편)정현숙 모니카, (물)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이은경 헬렌

> 레지오 봉쇄교육(2박 3일)

일시 : 9월 27(금) 오후 4시~29일(주일) 오후 5시

장소 : 뉴튼 수도원 / 지도사제 : 김구노(구노)

신청마감 : 8월 30일 / 선착순 70명(본당별 배정 없음)

참가비 : \$220 (50%는 꾸리아 분담)

문의 : 강호영 대건 안드레아 꾸리아 단장(516.521.3113)

> 9월 성경 공부 일정

수요일(휴강)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주일(1.22.29)	오후 1시30분~2시50분	

>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 9.3 그레고리오 9.4 모세 9.7 레지나 9.8 성모님축일
- 9.13 요한크리소스토모 9.16 고르넬리오 9.20 한국성인
- 9.21 마테오 9.23 테클라, 오상의 비오
- 9.26 고스마와 다미아노 9.27 빈첸시오
- 9.29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9.30 예로니모

> 9월 확대회의

대상 : 사목위원, 단체장

일시 : 9월 29일(주일) 11시, 교육관 3층 5호실

> 청년 찬양팀 기타 연주자 모집

청년 찬양팀 야훼이레에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청년미사에 함께 할 기타 연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연습시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2-3시/두 번째 토요일 3-5시

청년미사 : 매월 두 번째 토요일 6시

연락처 : 이재인 베로니카 / 카톡 : thegreatjaney

> 청년 성서모임, 참가자 및 봉사자 모집

청년성서모임은 3~6명의 그룹원과 봉사자로 구성된 소그룹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한 나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청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봉사자(이수현 소화데레사) : 646.251.4413

부대표 봉사자(안수관 토마스) : 215.470.8113

> 청년 성가대 단원 및 반주자 모집

1. 청년성가대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2.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전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박성현사라(카톡: spark31)에게 연락주세요.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교사 모집

주일학교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한국학교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917.887.5040)

> 주일학교 새 학기 등록

대상 : 만4세 ~ 12학년

신청 : \$40(마감일 : 9월15일) / 다미아노홀 학부모회

학기 시작 : 9월 15일 미사 후 클레어 룸

> 2020년 부활절 세례 및 견진 교리반 모집

기간 : 2019년 9월 22일 ~ 2020년 4월 5일

세례 및 견진일 : 2020년 4월 11일(토)

일시 및 장소 : 매 주일 오전 10:50~12:10/교육관 5호실

문의 : 김 헬레스틴 수녀 347.834.5784

◆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퍼시도록 빌어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 당신들은 이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미 사 봉 헌

<p>● 연미사</p> <p>임판례 이태묘, 이영우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 박우양 토마스 오태복 마리아 김세문 다니엘, 전순복 쟼마</p>	<p>● 복헌</p> <p>윤 루시아, 조 미카엘 이상홍 스테파노 민덕미 안젤라 박신희 리나 경 가밀라 김인숙 로사</p>
<p>● 색미사</p> <p>고종호 마태오 고윤제 고신제 김영복 아네스, 강세랑 엘리사벳 김동희 헬레나, 김화자 테레사 이계순 사비나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가족 박수정 크리스티나</p>	<p>이원경 모니카 이원경 모니카 이원경 모니카 강호영 안드레아 강호영 안드레아 김수경 로사 서인철 레오비노 양미숙 마리아</p>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9월 1일	김영희 안나	신윤길 요셉	손명희 엘리사벳	이원경 헬렌	이경자 벨라뎃타	정봉애 김행자	신정목 장종업	김창훈 김영숙 민재인 이지연 유정옥 장혜윤 이정현 김승애
9월 8일	채봉석 그레고리	백승민 안드레아	진달래 아가타	—	김애희 테클라	강호영 안선정	조완준 박정은	민완준 민덕미(성) 김은희(성) 김영숙 박신희 조리디아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조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s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 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한방병원
290 MADISON AVE FL6 NY,
NY10017 (b/t 40&41st)
212.203.0072 (문자가능)
예약/문의 카톡ID: nycacu

올림피아여행사
박로사
1270 Broadway 32, 33가 사이 #603
www.olympiaturusa.com
☎ 212-695-6699

광고주를 찾습니다


◆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아래성당 고해소
◆ 혼인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 유아세례	사무실 : 347-834-5784